



심리학사 2주차 :  
희랍에서 중세까지의 심리학

- \* 2주 1회차: 고대희랍에서 로마시대까지
- \* 2주 2회차: 중세의 심리학

2-1

2-1강 file no.1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리학사 및 이론 체계의 2주차, 희랍에서 중세까지의 심리학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주 1회 차에서는 고대 시대 희랍에서부터 로마 시대까지의 옛 사람들의 심리학 관련 생각 내용을 다루고 2주 2회차에서는 중세 심리학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 2주 1회차: 고대 희랍에서 로마까지

2-2

2-1강 file no.2

그래서 오늘 2주 1회차 시간에는 먼저 고대 희랍시대에서 로마시대까지의 심리학적 내용의 생각의 발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2주-1회차 학습 목차

- \* 알아두어야 할 이 시대의 중요 사항들:
- \* 심리학의 역사: 두 관점의 부/침
- \* 1. 희랍 이전과 희랍시대의 심리학
- \* 2. 초기 희랍: pre-Scocratic 철학자들
  - \* 2.1. 희랍시대의 자연주의자들
  - \* 2.3. Being vs. Becoming
- \* 3. Socrates와 동시대 학자들
  - \* 3.1. 최후의 physists
  - \* 3.2. Sophist: 인본주의적 상대주의
- \* 4. 고전적 희랍 시대: 500 - 300 B. C.: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 4.1. Socrates: (485-410 B.C.)
  - \* 4.2. Plato (428 c.-347 B.C.)
  - \* 4.3. Aristotle (384-322 B.C.)
  - \* 4.4.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희랍
- \* 5. 희랍의 의학
- \* 6. 희랍 전체

2-3

2-1강 file no.3

2주 1회 차 학습 목표를 간단히 살펴보면 고대 희랍에서 중세시대까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 특히 심리학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개관해보고 다음에 심리학의 역사를 두 개의 관점, 즉,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두 개의 관점(입장)이 서로 엇치락뒤치락 하며 발전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희랍 이전과 희랍 시대의 심리학]과 관련하여 먼저 희랍 이전의 생각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초기 희랍의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의 학자들을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섯 번째로는 희랍의 의학, 끝으로 여섯 번째는 희랍 전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2주-1회차 학습 목표

- \* 1. 희랍시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심리학 관련 중요 물음들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 2. 소크라테스 이전시대의 학자들의 심리학 관련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 3.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 관련 주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한다
- \* 4. 희랍시대 사조의 전반적 의의를 파악한다.

2-4

2-1강 file no.4

이 슬라이드에 이번 주 1회차의 학습 목표가 있는데, 그 것을 보면 희랍 시대에서 (중세에

이르기 전까지) 심리학 관련 중요 물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2주 1회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 학자들의 심리학 관련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 관련 주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희랍 시대 사조의 전반적 내용을 종합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이 시대의 중요 사항들

- \* 마음, psyche 개념의 변천사: 점진적 가다듬음
- \* 초월적 접근과 자연주의적 접근의 대립
- \* 지식의 유형
  - \* 선형적 참 진리(이데아)
  - \* 감각의존적, 경험적, appearance의 대립
- \* 물리주의, 원자론
- \* 심신이원론과 심신일원론의 대립

2-5

2-1장 file no.5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 시대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 그러니까 고대 희랍에서 중세까지 이르기까지 심리학 관련 중요한 생각들의 발전들을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로는 이 시대의 마음 개념, 그 당시에는 [psyche]의 개념, 또는 영혼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개념이 점진적으로 가다듬어지면서 변화하는 것을 다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는 초월적 접근, 심리적 접근과 자연주의적 접근이 대립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유형, 인간이 갖고 있는 각종 지식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경험 이전에 있다는 그런 입장하고 후험적으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습득이 된다 라는 그런 지식의 원천과 유형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주의하고 원자론의 입장인데 모든 물질을 물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자연현상을 물질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 물질도 원자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희랍 시대 소크라테스 이전의 기본적인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의 대립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 이 둘을 별개의 실체로 보느냐 아니면 통일 된 하나로 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립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 \* 영혼 (마음)의 구조 모형들
- \* 이성과 감성(역동)의 구분과 상호작용 개념의 발전
- \* 자연현상의 설명에 인과율의 도입
- \* 중세에서 Aristotle의 관점의 어떤 일부만 도입한 것이 기독교 문화의 암흑시기를 지속되게 하였는가
- \* 희랍, Aristotle의 자연주의를 이슬람 문화는 어떻게 계승, 발전시켰는가

2-6

2-1강 file no.6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영혼의 구조, 마음의 구조 모형에 대해서 마음의 어떠한 내용 구조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의 구분, 이것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이 제시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인과율을 도입해서 설명하는 그런 접근과 그렇지 않은 접근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중 어떤 일부만 도입한 것이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독교 문화의 암흑시대를 지속하게 된 생각의 단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 \* 르네상스는 이슬람 문화를 통하여 희랍의 경험주의, 인본주의.. 를 회생시키고
- \* 과학을 발전시킴

2-7

2-1강 file no.7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르네상스의 문제는 다음 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세의 과학의 발전 문제는 이번 주 2회 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심리학의 역사: 두 관점의 부/침

- \* **심리학의 발달:**
  - \* 계속된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극단의 두 관점 사이의 들쭉 날쭉한 부침
- \* **1. 과학적 접근: 자연적 가정**
  - \* 인간과 동물은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고 관련이 있다.  
동물 연구 → 인간 이해
  - \* 신체와 마음은 관련이 있다. 신체(뇌, 생리학)의 연구에 의해 마음을 이해
  - \* 모든 사건은 법칙적이며, 예언가능하다. 무선적인 예측불가능한 사건은 없다.
- \* **2. 초월적(transcendental) 가정**
  - \*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영혼이, psyche가 있다.
  - \* 마음은 신체와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신체, 뇌 이상의 어떤 것이다.
  - \* 어떤 사건은 법칙적이 아니며 예측 불가능하다. (신의 개입)

2-8

2-1장 file no.8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심리학의 역사해서 두 관점의 부침, 떠오름과 가라앉음의 얘기가 나오는데, 희랍시대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대립되는 관점이 서로 엇치락뒤치락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발달은 평평한 계속된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관점이 서로 들쭉날쭉한 떠오르고 가라앉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개의 관점은 첫 번째가 과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연적인 가정이죠. 과학적 접근은 인간과 동물이 하나의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동물 연구를 통해서 인간 이해를 할 수 있다 라는 관점입니다. 신체와 마음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신체 연구에 의해서 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접근의 본질인, 모든 사건은 법칙적이며 예언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 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런 과학적 접근, 자연적 접근에 대비되는 관점은 초월적 접근, 심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은 동물과 전혀 다르다, 인간은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신체와 전혀 다르고 신체, 뇌 이상의 어떤 것이 마음이다 라는 그러한 초월적인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의하면 자연의 사건 중 어떤 사건은 법칙적이 아니어서 예측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의 (의지의) 개입으로 인해서 세상 현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연현상은 법칙적이 아니다 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개의 입장이 서로 엇치락뒤치락하면서 떠오르고 가라앉고, 다시 떠오르고 가라앉고 하는 것의 되풀이 속에서 심리학의 역사가 발전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1. 희랍 이전과 희랍시대의 심리학

- \* 1. Mind 개념의 발전사
- \* 2. 고대와 희랍시대
- \* 3. 플라톤
- \* 4. 아리스토텔레스
- \* 5.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2-9

2-1장 file no.9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희랍 이전과 희랍 시대의 심리학]이라는 제목 하에 전체적인 목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마음(MIND) 개념의 초기 발전사, 고대와 희랍시대의 심리학, 플라톤의 심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심리학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 파일 끝에 [부록 2-1]로 첨부된 [psyche] 개념의 변천 역사 텍스트를 먼저 읽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고대 희랍시대의 “Mind” 개념의 발전 역사 개관

- \* Homer 의 Illiad:
  - \* Psyche
  - \* life, breath; coming out of body after death.
- \* Anaximenes
  - \* Pneuma
  - \* breath, air: runs through the body and transform it into solid materials.
- \* Heraclitus
  - \* Logos
  - \* something permeates the universe.
- \* Democritus
  - \* atoms
- \* Pythagoras
  - \* Psyche
  - \* soul left after death : dualism


2-10

2-1장 file no.10

고대 희랍 시대의 마음(mind) 개념의 발전 역사를 개관을 해보면, 마음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서구에서 마음의 개념의 가장 첫 언급은 유명한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호머의 일리아드 책의 내용에서는 [psyche]를 ‘죽으면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삶, 숨에 유사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Anaximenes는 마음에 대하여 ‘Pneuma’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그것이 몸 전체에 흐르며 몸을 고체로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Heraclitus는 마음 대

신 우주에 삼투되어 있는 ‘Logos’라는 개념을, Democritus는 원자라는 개념을, Pythagoras는 사망 후에 떠나는 영혼이라는 ‘Psyche’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부터 심신 이원론이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 Anaxagorus
  - \* Nous
  - \* Mind
- \* Socrates-Plato
  - \* mind -- idea of form
- \* Aristotle
  - \* nous, soul
  - \* the first great of actuality of a natural body
- \* 히랍 일반
  - \* Pneuma
    - \* breath or spirit which flows around the body
    - \* Pneumatology
      - \* - 신-> 신학
      - \* - 인간 - Psychologia로 후에 발전

2-11

2-1장 file no.1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낙사고라스는 ‘nous’ 라는 마음 개념을 사용하였고 소크라테스는 마음이라는 개념을 ‘idea’ 의 개념, 보편적이고 영구불변한 그런 ‘form, 형상’의 이데아의 개념을 사용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의 마음 개념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영혼(soul)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생물의 영혼(생령, 마음, 생명력의 의미)을 식물적 영혼, 감각적 영혼, 이성적 영혼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 이론과 관련하여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랍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pneuma’라는 마음 개념을 사용했고, 이것은 신체 내에서 떠다니는 숨 혹은 영혼 또는 영기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일종의 ‘pneumatology’ 의 개념인데 나중에 신(God)하고 연결돼서 신학으로 발전되었고, 인간하고 연결돼서 심리학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 \* Galen
  - \* Pneuma
  - \* -숨, + 3종류
    - \* natural spirit(섭생),
    - \* vital spirit (심장에서 체온 조절)
    - \* animal spirit : 심리적 pneuma - 뇌, 인지
- \* 기독교시대
  - \* holy spirit
- \* 중세시대 이후
  - \* animal spirit
  - \* soul
- \* Marullis:
  - \* 1450-1514
  - \* Psychology: 최초 심리학 단어 사용
- \* Wolff 17세기
  - \* Psychologia Empirica

2-12

2-1강 file no.1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계속해서 마음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됐는가가 제시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터키 지역의 의사였던 Galen은 마음의 개념을 숨 중심의 개념으로 생각하며 섭생적 측면, 생령적 측면, 동물적 측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시대에는 영혼, 그 다음에 성령(holy spirit)이라는 그 것이 강조되었고 중세시대 이후에는 영혼의 개념, 성령의 개념도 있었지만, 동물 영혼, 동물 영기(animal spirit)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끝에 가서야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고, 17세기 들어서야 경험적 심리학의 개념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 < 이집트 >: 동시대 <메소포타미안>

- \* 책/ 기록을 남김
- \* 종교에 관심을 가졌지 과학적 저술은 별로 없었음
- \* '영혼'을 믿음, 영혼의 변화
- \* 심리학에 의미 있는 첫 주요 저술은 :
  - \* Illiad
- \* 여기에서 'psyche'라는 단어가 사용됨 : 죽음 후에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
  - \* 따라서 'life', 'breath'의 두 의미를 지님.

2-13

2-1강 file no.1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집트 시대를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안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는



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적 접근은 관심이 없었고, 종교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생명과 숨의 개념으로써의 개념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안 문명의 영향에 대하여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이정도로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2. 초기 희랍: pre-Scocratic 철학자들

### \* <Critical Tradition>

\*

- \* 이전의 생각들은 고대 종교 중심의 폐쇄적, 추종적 사고이었는데 반하여
- \* 희랍의 소크라테스 이전 사조는 이러한 폐쇄적 사고, 추종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 \*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시작하게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 - 거기에서 자연주의, 경험주의, 인간중심주의의 헬레니즘 문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2-14

2-1장 file no.14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초기 희랍의, pre-Scocratic 철학자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분석-비판적 전통(critical traditio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이전의 생각들은 고대 종교 중심의 폐쇄적이고 추종적인 그런 사고였는데 반해서 초기 희랍시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의 희랍시대의 학자들의 생각은 그런 종교 중심의 폐쇄적이고 추종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종교적인 생각에 비판적인, 분석적인 사고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연주의적인, 경험주의적인, 인간중심주의적인, 헬레니즘 문화, 이러한 문화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 \* 1. 존재에 대한 초자연적 설명보다는 자연적 설명을 택함
  - \* 2.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관심 생김
  - \* 3. (아직은 실험이 아닌) 관찰적 접근
  - \* 4. 원자론
    - \* - 지각이론으로 제시되고 지각의 이차적 특질을 제시함
  - \* 5. 유물론 - 심신일원론
  - \* 6. 감각과 이성을 대비하여 논했으나, 느낌, 정서, 감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음
- \* -소크라테스 전 시대의 학자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발전시킬 물음들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2-15

## 2-1강 file no.15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희랍 초기 시대의 철학자들은 존재에 대한 초자연적 설명보다는 자연적 설명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나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초자연적 설명을 넘어서 자연적 설명을 하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긴 하지만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기 보다는 인간, 영혼, 죽음, 신 이런 것과 연결된 생각이었고, 의도적 실험이 아니라 아직도 우연적 관찰 중심의 접근이었고, 원자론이 상당히 강조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의 이집트 시대와는 달리 유물론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심신 일원론도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학자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발전시킬 물음들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 희랍시대의 철학자들이 생각한 중심 주제 중의 하나는
  - \* 불변의 참 지식(Divine Knowledge, true knowledge; true Reality)과
  - \* 감각경험에서 오는 표면적 지식(appearance)의 구별에 대한 논의의 문제였다.
- \* 이러한 논의의 대표적인 것이
  - \* Plato : 참지식인 Idea (Form)을 강조
  - \* Aristotle: 감각 경험의 강조
- \* 이와 관련하여 논의된 주제는 물질의 본질의 문제였다.
- \* 그들은 만물의 기본을 하나의 물질의 구성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 \* -> atomism, naturalism

2-16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런 소크라테스 이전과 소크라테스 이후 시대의 희랍 시대 철학자들이 생각한 중심 주제 하나는 강의 첫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지식의 근원, 지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였고 그런 것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어서 이론이 전개되었습니다. 플라톤은 감각 경험을 넘어서서 참 지식이라는 것이 보편적 형태로, 이데아라는 것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험은 감각 경험에서 나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희랍 시대의 사조의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자연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상당히 강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기독교 시대의 초자연주의적인 입장과 대비되는 입장입니다.



- \* 1. magic/주술적 사고
  - \* - 범신론이 기본적인 primitive animism
- \* 2. naturalism/자연주의
  - \* - 관찰을 통한 과학적 기술
- \* <아테네> 시대 이후
  - \* 우주 구성 요소를 주로 다룸

2-17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옛날에 이집트 시대에 주술(magic), 마술, 범신론적인 원시적인 물활론(또는 활물론, 생기론)의 그러한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희랍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가 번창할 때는 자연주의적인 관찰을 통한 과학적 기술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고, 이것이 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2.2. 희랍시대의 자연주의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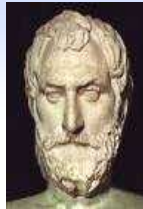
2-18

2-1강 file no.18

그럼 그 다음 시대에서 희랍시대의 자연주의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Thales



- \* : 외양(appearance)
  - \* 나무, 돌, 연기 등
  - \* 참 현실: water;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 즉 physis
- \* -> 세상은 평범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인간이 이해 가능한 것이다.
- \* -> 신의 의도/변덕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다.
- \* -> 이러한 접근은 만물을 종교적, 영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 \* → 자연주의적 설명을 시도하는 흐름을 시작하게 하였다.

2-19


2-1강 file no.19

먼저 나오는 것이 탈레스인데 이는 여러분이 초중고등 학교 때 이미 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레스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물질들로 구성돼서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신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시대 이후에는 기독교의 유일신이 있었지만, 당시 희랍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에 의해서 자연과 인간 세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물질들의 작용 과정은 인간이 이해 가능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의도나 변덕에 의해서 자연적인 현상, 사건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만물을, 자연 현상을 종교적, 영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러한 이전의(회랍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자연주의적 설명을 시도하는 흐름의 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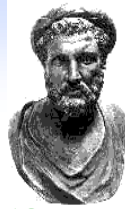
- \* **Anaximander**
  - \* animal life, 흠에서 진화 -> 성경 -> Darwin
  - \* 단일 요소가 아닌 비결정적인 많은 형태/ 진화개념
  - \* 화석에 근거하여 논의 전개함: 경험적 자료 바탕한 경험론의 출발
- \* **Anaximenes**
  - \* 'Pneuma'(공기)가 신체 속으로 흘러가서 물질로 변한다.
  - \* 유일한 기본요소 physis = air
- \* **Xenophanes**
  - \* 신은 인간이 만들어 낸 것 -> 반종교적 흐름



2-20

2-1강 file no.20

탈레스 말고 다른 학자들도 물질을 강조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낙시만더는 동물의 삶이, 아니 동물의 삶이라기 보다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삶이, 흠에서부터 진화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은 나중에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의 내용은 나중에 다윈의 진화론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낙시만더는 진화의 개념을 화석에 근거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경험적인 자료에 기초한 경험론의 출발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신체 속으로 들어가서 물질로 변한다, 유일한 기본 요소는 공기이다 라고 주장했고, 크세노파네스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다 라는 상당히 혁신적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 \* Pythagoras
  - \* 우주의 원리는 수, 수학
  - \* - 영혼과 신체의 구분: 신체는 영혼을 부패시키는 감옥
  - \* - 신체를 정화하여야 영혼이 진실을 습득
  - \* -> 플라톤에 영향 줌 -> 기독교적 사상에 영향 줌
  
- \* Alcmeon (500 B.C.):
  - \* 심리학의 기초 시작
  - \* 생리심리학적 접근: 지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 \* 눈->시신경->뇌의 연결 발견
  - \* 마음과 이성 (사고; reason)에 대한 철학적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생리학의 과학적 방법 적용한 시조가 됨
  - \*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뇌가 '마음의 자리'라고 생각함

2-21

2-1강 file no.2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피타고라스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논리는 수로 되어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영혼과 신체를 구분해서 이원론적인 입장을 제시를 하면서 신체는 영혼을 부패시키는 감옥이다. 신체를 정화해서 영혼이 진실을 습득해야한다 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플라톤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에 들어가서 오늘 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크메온은 생리심리학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지각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대상을 사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는가? 그 것에 대해서 오늘 날도 지각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론을 제기하지만, 옛날의 희랍 사람들은 주로 철학자, 과학자, 초기 자연주의자들이 생각을 전개하였습니다. 알크메온은 눈에서 시신경이 나와서 뇌로 연결되고 이것이 사물을 보게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크메온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는 이유는 희랍 시대의 다른 사람들, 즉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인간의 심장이 마음의 자리라고 보았었는데, 알크메온은 뇌가 마음에 자리라고 선구자적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 2.3. Being vs. Becoming: 현실과 변화

- \* Being 주의자:
  - \* 인간을 떠난 그 윗수준의 참 진리, 가치, 존재가 있음
- \* Becoming 주의자:
  - \* 그런 것은 없고 항상 변화하는 세계만 있음

2-22

2-1강 file no.22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희랍시대에서 첨예하게 부각되었던 문제 중 하나가 'being' 대 'becoming'의 대립입니다.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현재 존재하는 것이고, 'becom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정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희랍시대 학자들을 보면 현실에 지금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변화하는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 \* Heraclitus
  - \* '물'이 우주의 요소(physis); 끊임없는 갈등과 변화 강조
  - \* theory of fluxes-> uncertainty -> freewill ;
    - \* 변화는 법칙적
  - \* 'logos'
    - \* 우주 전체에 퍼져있는 것
    - \* 감각과/ 이해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의 구분
- \* Parmenides
  - \* Being.
  - \* 변화란 외양, 인간의 착시이며, 참 진실, 참 존재가 있음.
  - \* 이 참 진실의 세계는 이성(reason) & logic 에 의하여 접근 가능
  - \* 세상사에 대하여 전제로부터 논리적 연역을 도출하는 합리론의 시조
  - \* 플라톤 -> 신플라톤주의 -> 중세 기독교

2-23

2-1강 file no.23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먼저 헤라클리투스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변화의 개념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심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파메니데스는 변화가 아니라 'being'의 개념을 강조하여 현재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현실에 존재하는 것,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현실, 외향, 눈에 보이는 외양이란

착시이며 이것을 넘어서서 참 진실, 참 존재가 존재하고 그 것을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이 것이 플라톤의 기본 입장에 들어가고, 신플라톤주의, 중세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 Empedocles (450 B.C.)

- \* 경험론의 창시자
- \* Alcmaeon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감각과 지각의 경험론적 이론 제시
- \* 물체는 특정 감각과 관련된 어떤 것(방출물)을 방출하고 우리가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이를 복사하여 받아들이는 것임: 예; 냄새
- \* 그러면 어떻게?
  - \* => 대상 -> 방출물 -> 혈관 -> 심장 -> 혼합
- \* 사고란?
  - \* 심장 속에서 방출물 혼합하는 과정상의 동요
- \* <= 의의: 인간의 심리 현상에 대하여 순수하게 생리 메커니즘적 과정이론 제시
- \* <= 다른 학자들은 영혼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는 심리과정을 생리심리적 이론으로 설명
- \* ==> 자연주의; 경험론 (<= 관찰 의존적); 표상주의 => 내적(생리적) 표상

2-24

2-1강 file no.24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엠펬도클레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서구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각 관련해서이고, 둘째는 사고 관련 생각이고, 셋째는 생리심리학 관련 생각입니다.

시각 관련에서는 엠펬도클레스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전개하였습니다. 물체는 특정 감각과 관련된 어떤 방출물을 방출하고, 우리가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이를 복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시각이나 후각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대상에서 어떤 방출물이 나오고 그 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혈관을 따라서 들어가고 심장에까지 들어가면 심장에서 그 것을 통합하여 혼합한다 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일종의 마음의 자리라고 본 것이지요.

다음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심장 속에서 이 방출물을 혼합하는 과정상의 동요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 심장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현상이 생리적 과정, 신체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생리 심리학적 이론을 이렇게 일찌감치 이미 희랍시대에 제시를 한 것이지요.

그 방출물이 어떤 식으로 혼합되어서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엠펬도클레스의 생각의 전개는 현대의 인지심리학이나 인지주의에서 말하는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 라고 보겠습니다.





- \* \*\* 역사상으로 왜 합리론보다는 경험론이 심리학에 더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첫 예.
- \* ← 사고가, 이성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외적 방출물의 조합에 불과함; 참 진실이란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에 의하여, 감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가능하다;
- \* → 감각기능의 경험론적, 기계론적 심리학의 바탕이 됨
- \* → 반론 ← ; 합리론자들:
  - \* 감각 경험은 외양 appearance만 볼뿐, 참 진실에 도달 못한다. 경험 불신.

2-25

2-1강 file no.2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엠펬도클레스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엠펬도클레스는 감각기능, 경험론, 기계론적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심리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이러한 관점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그가 희랍시대에 이미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 3. Socrates와 동시대 학자들

- \* B1. 최후의physists: atomism (원자론): 자연주의
  - \* Democritus
- \* B2. Sophist: 인본주의적 상대주의
- \* B3. anti-naturalism/반자연주의
- \* B4. Biologist

2-26

2-1강 file no.26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학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원자론자들, 소피스트들, 반(反)자연주의자들, 생물학자들 등의 입장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지요.



### 3.1. 최후의physists: atomism (원자론): 자연주의자: Democritus

- \* (420 B.C.)
- \* → 모든 것이 작은 요소로 되어 있다. : 원자론
- \*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eidola)가 공중에 날라 다닌다.
- \* → 모든 감각은 가짜이다. 감각, 냄새, 색깔 등은 감각이 아니라, 원자에 의해 이차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 \* → 원자적 기계론적 결정론
  - \* 마음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과 단지 양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 \* 원자의 운동속도나 그 행동의 미묘성에서만 다를 뿐이다.
  - \* 감각경험을 일으키기 위하여 물체의 원자는 일정한 강도를 지녀야한다 (정신물리학)



2-27

2-1강 file no.27

다음에 희랍시대의 최후의 물리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연주의자인 데모크리투스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데모크리투스는 모든 것이 작은 요소로 되어있다는 원자론을 중심 개념으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가, 즉 ‘아이돌라(Eidola)’ 라고 하는 것이, 공중을 날라 다닌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모든 대상(물체)은 그 자신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대상을 지각하게 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런 입장이 중세, 17세기, 18세기 현재에까지 이어져 나오는 생각이고 데모크리투스가 이런 것을 처음 얘기 한 것이지요.

또한 데모크리투스는 원자적 기계론적 결정론을 제시를 했다 라고 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뉴턴이나 과학자들이 발전시킨 개념인 이 기계론적 결정론(mechanistic determinism)이 데모크리투스에 의해서 이미 희랍시대에 그 바탕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마음도 원자로 이루어져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단지 양적 차이만 있고 원자의 운동 속도나 행동의 미묘성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각경험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체의 원자는 일정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는 정신물리학(심리물리학적)인 입장을 제시해서 후에 19세기에 Weber 등에 의하여 탄생하게 되는 정신물리학(psychophysics)의 선구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데모크리투스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 \* 감각과 사고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 \* 대상이 보이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의 image를 내보내는 데 이것이 공기 원자에 그 이미지 모양을 형성하게 하고 이것이 눈의 원자에 닿으면 이것이 마음으로 전달된다.
- \* => 표상이론

2-28

2-1강 file no.28

데모크리투스에게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현대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표상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대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대상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내보내고 있고, 이것이 공기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공기 원자에 그 이미지 모양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눈의 원자에 닿으면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대상의 모양을 보게 된다는 상당히 현대적인 [시각대상에 대한 형태인식(pattern recognition) 인지과정 이론]을 그 당시에 그는 이미 제시했던 것입니다.



- \* 'There is no God, no soul, only material atoms in the empty space.'
- \* 영혼과 자유의지는 우리의 착각에 지나지 않으며
- \* 이들 모두를 물체들의 기계적 기능으로 환원 가능
- \* 우리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 \* 신체의 변화, 그리고 신체에 가하여지는 물질적 구성물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
- \* 사고과정이란 물질의 복사물인 eidola-image를 조합하고 분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복사물이 eidola의 있는 그대로의 복사물인지는 알 수 없다.
- \* 따라서 우리는 참 진실, 참 진리는 알 수 없다.

2-29

2-1강 file no.29

그 다음 슬라이드는 신, 영혼, 자유의지 등에 관한 그의 생각입니다. 그는 영혼과 자유의지

라는 생각은 인간의 착각에 지나지 않은 개념이며, 신이나 영혼이 없고, 모든 것을 물질적인 원자의 기능으로 환원할 수 있으며, 오직 물질적인 원자만이 빈 공간에 있을 뿐이라는 자연주의적 생각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상 자체를 도저히 직접 알 수는 없으며 오로지 신체에 가하여지는 물질의 구성물 그리고 물질로서의 신체의 변화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과정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사물인 이미지(아이돌라)의 조합과 분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 eidola라는 복사물이 물질의 있는 그대로의 복사물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참 진실, 참 진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자연주의적 회의론을 이미 희랍시대에 전개한 것입니다.

원자론

- \* 원자론
  - \* => 유물론, 결정론(determinism), 환원론(reductionism) 지지
- \* => 복사물과 eidola의 구별은 :
  - \* 17-18세기의 영국 경험론/연합주의에서 1차감각요소, 2차감각요소의 형태로 다시 나타남
  - \* => 현대 인지주의의 표상 개념
- \* hedonism:
  - \* 참 진리란 알 수 없으니, 그리고 신이나 영혼도 없으니. 삶의 기준이란 물질적인 것, 고통을 피하고 쾌를 추구하는 것일 수 밖에.
- \* <== 비판을 받으니까,
  - \* ==> 방어: 최고의 쾌는 철학하기

2-30

2-1장 file no.30

요약하자면, 데모크리투스가 원자론을 제시하고 eidola-image론을 제시하여 유물론과 결정론 그리고 환원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상에 대한 복사물과 그에 대한 이미지인 eidola를 구분한 것은 후에 17세기와 18세기의 영국 경험론과 연합주의의 감각과 지각 설명이론에서 (물론 17세기 당시에는 심리철학의 논제이었지만) 자극대상의 직접적인 입력 결과인 1차 감각요소와 그의 처리된 표상된 결과인 2차 감각요소의 구별 이론으로 다시 나타나며, 현대 인지주의의 표상이론의 선구적 생각이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데모크리투스는 쾌락주의(hedonism) 입장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장은 말하자면, 신이나 영혼도 없으니까, 참 진리란 알 수 없고, 따라서 인간 삶의 기준이란 물질적인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비판이 강하게 제시되자 그는 쾌의 개념을 '최고의 쾌는 철학하기'라는 입장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짓자면, 데모크리투스는 현대적 유물론적 자연주의의 선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2. Sophist: 인본주의적 상대주의

- \* Protagoras:
  - \* 감각 경험의 상대론: 찬물, 뜨거운 물 => 미지근한 물의 두 감각은 상대적
  - \* → 고로 감각=> 절대적 영구한 참 진리는 불가 => 문화적 상대론
  - \* => 오직 남는 기준은 인간.
- \* Sophists:
  - \*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Humanism
  - \* 우주에 대한 물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하여 물음을 던져야
  - \* relativistic empiricism, 문화적 상대주의, 절대적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님

2-31

2-1강 file no.31

다음 슬라이드 3.2절의 소피스트들의 생각의 전개를 봅시다. 그들은 이전에 나와 있던 물질주의 학자들과는 다른 인본주의적 상대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물의 찬 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의 지각의 예를 두고 생각하여 볼 때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참 진리, 참 감각 내용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사람, 문화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타고스의 생각들이 후대 소피스트 철학자들에게 계속 전달되면서, '인간이 모든 사물의 (판단의) 척도이다,' 우주나 신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하여 물음을 던져야 한다 라는 이러한 입장은 이후에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형성될 수 있는 바탕의 생각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간이 판단의 척도이며 진리에 절대적 규범이 없다는 지식의 상대성 이야기는 후에 상대적 경험주의, 문화적 상대주의 등을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여러 학자들의 생각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진 물음의 기초를 마련
  - \* → 경험론과 합리론의 싸움이 시작됨
- \* => 현대 심리학에서도 경험론과 합리론의 계속된 대립이 있음
  - \* 예: 행동주의 심리학 대 충스키적 인지주의, 일부 발달이론가 등.
- \* 그러나 현대의 인지주의는 이론 도출에서는 합리론, 이론 입증에서는 경험론의 타협적 관점 유지함
- \* \* 초자연적 존재보다는 자연적 존재를 더 선호
- \* 자연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관심, 경험론 (단, 실험적 접근은 아님), 유물론, 원자론

2-32

2-1장 file no.32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철학자들은 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지는 물음에 기초를 마련해서 경험론과 합리론이 싸울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이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심리학 대 인지주의 심리학의 대립이 이미 희랍시대에서 바탕을 두고 출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대 인지주의는 희랍시대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타협한 입장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희랍시대 특성의 하나는 초자연적 존재보다는 자연적 존재를 더 선호하는 그런 입장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전체를 이해하기위한 관심이 제기되고 경험론이 제기되고 유물론 원자론 이런 것들이 제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 기독교의 입장하고는 어긋난 입장이지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 암흑시대에는 이러한 생각이 억압이 되고 이 중세 기독교 시기를 지나서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에 예전의 희랍 시대의 자연주의가 부활되면서 르네상스가 전개된 것이지요.



- \* 3. anti-naturalism/반자연주의
  - \* Pythagoras:- 우주의 기본은 수number ; 신비주의
  - \* Zeno - paradox, illusion
  - \* Prothagoras -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보다는 도덕과 행동을 이야기함

2-33

2-1강 file no.33

이러한 자연주의적인 입장이 당시 희랍에 퍼져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반자연주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기본은 수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죠. 물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일종의 신비주의이고, 이성주의, 합리주의와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제노는 제노의 모순 개념을 제기해서 지식이라는 것이 착각이다 라는 입장을 제기하였고, 프로타고라스도 우주나 물질보다는 도덕성 등의 보편적인 인간적인 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4. . Biologist- 생물에 초점
- \* → Anaxagoras
  - \* 대립되는 것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 -> Hipocrates
  - \* mind를 지칭하는 개념인 nous를 처음 사용; 감각의 취약함 -> 아리스토텔레스
- \* → Empedocles ;
  - \* 갈등과 사랑, 신체와 세상이 신체의 숨구멍을 통해 상호작용
- \* → Alcameon: 500B.C.
  - \* 뇌가 지각, 감각, 사고의 자리이다. 뇌에서 모든 감각들을 모아서 영혼을 다루는 기능을 한다. 감각은 pneuma의 채널을 통하여 뇌에 도달한다. 감각과 지각 구별
- \* → Hippocrates : (460-377 B.C.) 경험적 의학.
  - \* 심리적 경향의 체액(humor) 설
  - \* 경험주의적, 체액의 조화 -> 병, 뇌가 지적 활동의 자리, 좌우 대칭적
  - \* 임상치료 강조, 병의 분류; - 가설검증보다는 징후 중심 다름

2-34

2-1강 file no.34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미 이야기된 바처럼 이전의 자연주의적 학자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희랍시대에 그래도 자연주의적인 생물학에 중점을 둔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낙사고라스, 엠페도클레스, 알카메온 같은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들은 생물학에 초점을 둔, 그러니까 심리학을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생각의 단초를 여기서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적 생각과 관련하여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논 한 이후에 5절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 4. 고전적 희랍 시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 Socrates, Plato, Aristotle
- \* 새과학 출발시킴 : 생물학

2-35

2-1강 file no.35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룹니다.





## 4.1. Socrates: (485-410 B.C.)



- \* **도덕철학**
- \* 물리학에의 관심이 아니라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물음
- \* 덕, 정의, 미, 용기, 선; 이론의 강조
- \* 윤리학, 인식론 출발시킴; 대화법, 자기분석
  - \* -> 정신분석학
- \* 개념 분석 -> 지식
- \* 인간 동기심리학 출발
  - \* (쾌, 불쾌 원리, 행복 추구): 행동 원인의 다원성
- \* <= 실제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점을 구분하기 힘들음

2-36

2-1강 file no.36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소크라테스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덕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 물리주의, 물리학이 아니라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도덕, 정의, 전, 미, 용기 등과 관련하여 도덕적, 철학적인 입장을 제시하여 철학에서 도덕론과 관련하여 윤리학의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도덕론의 일부 내용이 후에 심리학에서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의 생각들로 다시 나타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것 중에는 자기 분석 대화법에 대한 강조도 있었는데, 자기 분석 대화법은 나중에 20세기 초에 프로이트가 도입을 해서 정신분석학의 기본적 방법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쾌, 불쾌 원리라든지 행복 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동기 심리학의 출발점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점은 (예를 들어 인식론은) 누가 누구의 애간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대체로 다음의 플라톤의 생각의 전개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 4.2. Plato (428 c.-347 B.C.)

- \* <= Socrates + Plato
- \* 감각/지각 경험을 넘어선 생득적, 본유적 지식 강조
  - \* => Descartes, Kant
  - \* => 관념론,
  - \* => 생득론,
  - \* => 발달심리 이론,
  - \* => 인지주의이론 에 계속적 영향



2-37

2-1강 file no.37

4.2절에서 플라톤을 다루는데 플라톤의 입장은 대부분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의 중요한 기여는 합리론, 이성론, 보편적 지식론, 생득적 지식론 이런 것을 제시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후에 데카르트나 칸트에게 전하여져 이어지고 그래서 철학과 심리학에서 관념론이라든지 생득론, 발달 심리 이론, 인지 심리 이론에 플라톤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초월주의 : 반자연주의 반 생물학 관점
- \* 관념론 :
  - \* 물질로부터 마음과 관념을 구별함,
  - \* 마음이나 영혼이 참 형상.
  - \* 날개 감각 내용을 넘어서는 보편성: Universal
  - \* 지식(영혼)은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에도 신체와 독립적으로 잔존 (2원론)
- \*
  - \* <= 소피스트의 감각경험의 상대론을 수용함,
  - \* 헤라클리투스 의 변화 개념 수용함.
  - \* 고로 감각, 지각 경험의 계속 변화성, 불확실성 수용함.
  - \* 그러나 이것은 참 지식이 아니고,
  - \* 참 지식이 존재함 = Ideas (Forms)

2-38

이제 그 플라톤의 입장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생각의 두드러진 면은 첫째는 초월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 자연주의적, 반 생물학적 관념을 그는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관념론(idealism)이라고 묶어서 생각 할 수가 있는데, 플라톤은 물질로부터 마음과 관념을 구분했습니다. 마음과 이데아를 구분했고, 마음이나 영혼이 참 현상이고 물질은 부차적인 그런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는 경험에 의하여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내용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어떤 것, 사라지지 않는 영구한 어떤 것(형상; forms)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여서 보편적 이데아(Idea)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영혼 또는 지식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생득론) 죽은 후에도 신체와는 독립적으로 살아남는다는 이원론적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록 헤라클리투스의 변화 개념이나 감각경험의 상대론을 일부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플라톤은 참 지식은 감각경험을 넘어서 존재한다는 초월주의 입장의 원조이었습니다.



- \* 지식은 감각, 지각적이기 보다는 인지적, 감각경험을 넘어섬, 영구적 원리, 존재
- \* 감각경험은 날개의 예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음 그러나 참 지식은 보편성을 지닌 지식
- \* **Universals:**
  - \* => 현대 Chomsky의 보편적 문법, 언어 보편적 지식 (linguistic universals)
- \* 모든 지식은 생득적: 선천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 (Forms)을 생각과 대화/변증법으로 재생함
- \* 감각, 지각된 appearance에서 참 지식, 이데아로 가는 방법?; 변증법: dialectics
- \* → 합리론 강조; 경험론 소홀

그는 지식은 감각적, 지각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감각 경험을 넘어서서 영구적 원리, 이데아로 존재한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감각 경험은 날개 예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고 참 지식은 날개의 사례들 넘어선 보편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인지주의에서 N. Chomsky 등이 강조하며 주장하여 언어 문법적 지식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으며 여러 언어에 보편적 생득적 문법 지식이 있다는 언어적 보편성(linguistic universal)의 개념의 선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각, 지각 경험에서 참 지식이나 이데아로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플라톤은 대화와 변증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현대 과학의 기본 입장인 경험론을 소홀이 다루고 이상적 합리론적 접근을 강조한 셈이지요.



- \* 외적 감각/지각 자극은 생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회상, 재생시켜 냄
  - \* → 학습/인지심리 이론
- \* ?? 어떻게?
  - \* → 외적 자극과 내적 지식(Forms) 사이의 유사성, 접속성에 바탕하여.
  - \* → <연상> → 연합주의

2-40

2-1강 file no.40

그리고 인식과 기억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플라톤은 지식은 외적 감각이나 지각된 것은 생득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단순히 회상 재생 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득적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학습 심리, 인지심리 이론의 한 이론의 바탕이 되는 입장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식이 생겨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생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재생하는 것인데 지식과 지식 사이의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적 자극과 내적 지식(미리부터 알고 있던 것) 사이의 유사성과 접속성에 의해 지식이 형성된다 라는 연합 주의적 입장을 (경험론적 연합주의가 아니라 관념론적 연합주의의 입장)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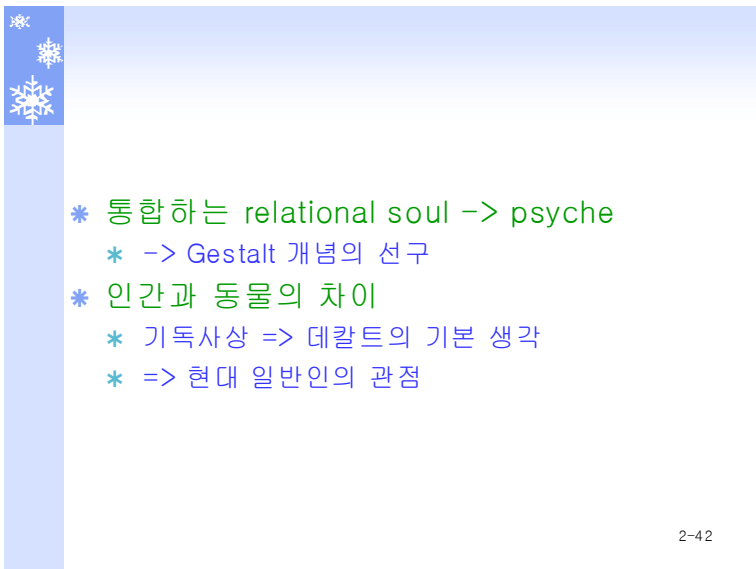


- \* 지식
  - \* => 감각. 지각된 외양지식 (appearance) + 의견
    - \* **imagining**: 이미지들
    - \* **belief**: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상들
  - \* => 참 지식 (추상적 지식)
    - \* **thinking** : 수리적 사고
    - \* **Intelligence (true Knowledge)**:
      - \* 이데아, 최고선, 최고수준 지식

2-41

2-1강 file no.41

[감각 또는 지각된 외견적 지식(이미지와 같은 외양)] + [주관적인 (생득적인) 생각, 의견, 신념들 ]이런 것이 덧붙여서 참 지식을 형성한다는 입장이지요. 그에 의하면 참 지식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생득적으로 알고 있던 이데아라는 추상적 지식이며 이것이 최고의 선, 최고의 지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 틀은 중세 기독교가 최고의 선으로서의 [신]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의 중세의 기독교 암흑시대에는 자연주의적 경향이 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금기, 금서가 되었고 초월적 합리론의 플라톤적 사상만이 긍정적으로 강조된 것입니다.



- \* 통합하는 relational soul -> psyche
  - \* -> Gestalt 개념의 선구
- \* 인간과 동물의 차이
  - \* 기독교사상 => 데칼트의 기본 생각
  - \* => 현대 일반인의 관점

2-42

2-1강 file no.4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그렇게 감각적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통합하는 관계를 짓는 그런 마음의(relational soul) 특성이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플라톤에 의하면 그것이 통합성이 있는 마음, 이데아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psyche'의 개념과 연결되면서 후세에 전달이 되고 나중에 형태주의('Gestalt') 심리학 개념의 전조가 되는 선구적 개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사상은 기독교 사상, 그리고 데카르트적 (동물과 인간을 별개의 존재로 다루는, 그리고 진화론을 안 믿는 현대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개념인) 인간관 개념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지각심리>
  - \* 지각된 바는 대상에서 발산된 것과 눈에서 발산된 것의 조합
- \* <인지심리>
  - \* 연상association
    - \* 유사, 접속의 원리:
      - \* 기억/인지심리 => 아리스토텔레스 => 18세기 연합론
  - \* 기억은 경험의 밀랍 같은 impression
  - \* 기억 강도는 : 유사성; 함께 경험한 접속성의 함수
    - \* 고로 기억의 지속성 =  $f$  ( 경험의 빈도(연합주의), 밀랍의 순수성( 간섭배제, 개인차)
  - \* 부호화 기억과 인출기억을 구별
  - \* → 기억심리, 인지심리에 영향줌

2-43

2-1장 file no.4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플라톤이 심리학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각심리에 대해서는 지각된 바는 대상자극에서 발산된 것과 눈에서 발산된 것의 조합이라는 이전 학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인지심리학 관련해서는 먼저 각종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유사(similarity)와 접속(conjunction)의 원리를 제시했고, 다음에 기억과 관련하여서는 기억은 밀랍을 꼭 눌러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어떤 인상, 감각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억이다 라는 상식적 입장을 제시하였고, 기억의 강도는 함께 경험한 것들의 유사성과 접속성(연접성)의 함수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억의 강도 또는 지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기억의 매체(플라톤에게서는 밀랍 유추)의 순수성(다른 것의 간섭이 없을 것; 개인차가 존재함)과 그 경험의 빈도(얼마나 두 사건을 자주 함께 경험하였는가)의 함수로 개념화되었습니다. 그는 기억해 넣기와 기억에서 꺼내기를 구별하여 현대 인지 심리학이 이론적으로 전개하는 부호화(encoding) 과정과 인출(retrieval) 과정의 구분 근거를 오래전에 제시한 셈입니다. 그런 점과 다른 몇 몇 개념 중심으로 본다면 그는 부분적으로는 현대 인지심리학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 \* 영혼 (마음, intelligenne)의 유형과 구조
  - \* 1. rational soul :
    - \* 참 진리, 이데아 추구;
    - \* 뇌에
  - \* 2. spirited/ courageous soul:
    - \* 명예 추구;
    - \* 심장에
  - \* 3. appetitive/ passionate soul;
    - \* 신체적 쾌 추구;
    - \* 배에
  - \* 1 이 2, 3을 통제, 제어하여야함:
    - \* 경륜마차 (chariot)의 마부와 말 비유;
- \* → Freud의 마음의 구조 이론에 영향
  - \* Superego의 ego 및 id 통제 이론의 선조
  - \* 동기적 심리 역동 (다이내믹스)

2-44

2-1강 file no.44

그 다음에 플라톤은 영혼의 유형과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영혼 구조를 이야기하였습니다(당시에는 ‘마음’이라고 하기 보다는 ‘영혼’의 개념으로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영혼(rational soul; 뇌 중심; 참 진리 이데아 추구)과 활발하고 용기있는 영혼(心魂, spirited, courageous sou; 심장 중심; 명예 등 추구), 세 번째는 몸에 바탕을 둔 감성(정서)적, 정열적 영혼(appetitive or passionate soul: 복부 중심; 신체적 쾌 추구)을 거론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개념이 나중에 프로이트의 마음의 구조의 이론, ‘super ego’, ‘ego’ 및 ‘id’ 에 이어져서 프로이트가 플라톤의 영혼의 구조 3개념에 바탕을 두고서 마음의 정신 역동 이론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 <동기심리>
  - \* 동기/ 정열은 3에 의하여 비롯됨,
  - \* 이는 잘 다스려서 승화시켜야;
  - \* 신체는 감옥 ->
    - \* 현대의 철학자들의 'ghost in the machine' 개념
  - \* → Freud의 생각의 원조:
    - \* 마음의 두 측면 구분
  - \* nous & thymos;
    - \* rational /reason- moral → 프로이트의 superego
    - \* epithymia - appetitive & passionate -
    - impulse/ emotional → 프로이트의 id
    - \* 두 힘이 대립
  - \* 사람은 쾌 추구, 고통 회피의 동물적 특성 있음,
  - \* 행동 통제 메커니즘 설명: → 동기심리

2-45

2-1강 file no.45

이어서 플라톤은 동기의 메카니즘 관련 생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동기가 신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성적 영혼이 통제해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신

체에 기반을 둔 영혼이 이성적 영혼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신체는 일종의 감옥과 같다는 그의 생각은 현대 철학자들이 마음을 ‘기계 속의 유령(Ghost in the machine)’으로 생각하는 선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기독교식의 생각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생각 등으로 이어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주로 이성적 영혼의 측면, 즉 인지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이를 도덕론과 연결지어 논했지만, 마음의 두 측면을 고려하여 감정적(정동적; emotional) 측면도 이러한 이성적 측면과 구분하여 논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 ‘공화국’에서 영혼(soul)은 이성적 지성(nous; 'intellect')과 열정(humos; 'passion')과 욕망(추동; epithumia; 'appetite')으로 나뉘이며, 이성적 영혼에 해당하는 로고스(logos)가 열정과 욕망이라는 두 말을 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욕망(thumos)’ 개념은 우리가 분노, 공포 등을 느끼는 정서(정동)적 요소입니다. 이성과 대립되는 요소로서의 (몸에 바탕을 둔) 추동이라는 이러한 감정적 개념은 후에 프로이트에게서 id라는 개념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 \* <성격심리>
- \* 성격 유형 분류
- \* → 성격심리 시작의 기초
- \* <교육심리, 발달심리>
- \* 교육은 생득적 지식을 끌어내는 것,
- \* critical periods:
- \* 운회설을 믿음, 사망하면 영혼은 신체를 떠나 있다가 다른 동물적 감각/지각을 지닌 신체를 타고 회생
- \* -> 몸과 영혼이 맞지 않아서 갈등과 혼란
- \* - 유아에게서 지식이 없는 이유
- \* -> 고로 적응하여야
- \* -> 교육은 합리적 이성이 새 신체, 하위영혼을 통제하게끔 하여주는 것.
- \* 학습이론 제시
- \* 여성의 능력 동등: 여성심리학 기초 제시

2-46

2-1장 file no.46

그는 성격 심리학적 주제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는데, 그는 성격 유형을 분류하여 성격 심리학이 시작되는 기초를 놓았고, 교육심리와 발달심리와 관련하여는 교육은 생득적 지식을 끌어내는 것, 또는 이성적 영혼이 신체에 기반한 영혼의 부분을 통제하게끔 하여 주는 것, 또는 생득적 지식을 끌어내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의 능력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해서 여성 심리학의 기초를 제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플라톤의 문제점

- \* 초월주의 강조
  - \* → 반 자연주의
- \* 감각/지각 경험의 중요성 소홀히 함
  - \* → 경험적 심리학의 출발 지연
- \* 과정 보다는 불변의 형태, 내용 강조
  - \* → 심리과정 분석 중심의 심리학 출발 지연

2-47

2-1강 file no.47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들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그가 초월주의적인 입장을 강조함으로 인해, 반 자연주의를 계속 지지 하였고, 감각과 지각 경험의 중요성을 소홀히 해서 경험적 심리학의 출발을 지연시켰고, 심적 과정보다는 불변의 형태 등의 개념을 강조해서 심리학에서 과정 중심으로 경험적 과학으로의 심리학이 출발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에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비록 그가 마음의 본질에 대한 좋은 이론을 제기했지만, 경험과학적 심리학의 발달은 지연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4.3. Aristotle (384-322 B.C.)

- \* 플라톤이 이데아를 강조하고 감각과 지각을 소홀히 한 관념론자, 합리론자이었다면,
- \*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과 지각 경험을 중시한 경험론자였다. 플라톤이 연역법 중심이었다면
- \*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법 강조하였다. 경험과 관찰. 관찰에 의한 계속적 이론 수정.
  - \* 그러나 두사람 모두 우주를 기계적 원리로 설명하려는 데모클리투스의 입장에 반대

2-48

#### 4.2.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희랍시대의 심리학적 사고를 한 최고봉의 인물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강조하고 감각과 지각을 소홀히 한, 관념론자, 합리론자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과 지각 경험을 중시한 경험론자였습니다. 플라톤이 연역법 중심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법을 강조했고,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계속적 이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론자, 자연론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다 모두 우주를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려는 데모클리투스의 입장에는 반대하였습니다.)



### 아리스토텔레스와 심리학

- \* 경험론적 접근의 체계적 시작
  - \* 감각, 지각 경험의 관찰에 의한 심리학의 출발 가능하게 함
  - \* 자연의 위계적 체계 강조
- \* 인과율의 중요성 및 4 인과유형 제시
- \* 귀납적 추론 방법의 체계화
- \* 인간과 동물의 연속성 강조
  - \* 진화론적 계층 관점 제시
- \* Soul의 다원적 구조 제시
  - \* 신적 영혼, 인간적 영혼, 동물적 영혼, 식물적 영혼 유형
  - \* 인간만이 이성/사고를 지닌 동물
  - \* 인간과 동물의 연속성 강조

2-49

심리학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sup>1)</sup>의 생각 중의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자면, 그는 마음 현상에 대한 경험론적 접근을 제시를 했고, 인과율의 중요성 및 인과 유형 네 가지를 제시 해서 과학적 접근 출발을 지원했고, 귀납적 추론 방법을 체계화해서 과학적 접근을 도와줬고, 인간과 동물의 연속성을 강조를 해서 나중에 인간 자체와 인간의 마음을 자연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결국에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영혼의 다원적 구조를 생각하여 식물적 영혼(vegetative soul; 번식과 성장 위주), 감각적 영혼(sensitive soul; 동물적 영혼), 이성적 영혼(rational sou; 인간적 영혼), 신적 영혼으로 분류하고, 식물에서 동물, 동물에서 인간(이성적 영혼) 사이에 연속성을 가정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인간만이 이성과 사고(지성)를 지닌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개했습니다.

1) 여러 권의 책, 그리고 논문들로 기술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간단하게 축약하여, 그리고 그것도 개인적 편향과 왜곡이 점철된 채로, 여기에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독자들에게 미안함을 지닌 채 제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Aristotle>]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다른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 \* 과정으로서의 마음, 계속 변화하는 becoming으로서의 마음 강조
- \* 감각/지각의 유형 및 이를 통합하는 공통감각 (common sense) 개념 제시
  - \* 사고는 감각경험에서 온 이미지가 있어야 가능
  - \* => 이 입장이 분트에게까지
  - => 19세기의 imageless thought 의 가능성 논쟁
  - \* 기억의 메커니즘 제시 시도
- \* 마음의 본질과 학습
  - \* 빈 서판 (blank slate)으로서의 마음 개념 시작
- \* 연합법칙 제시 (사고 및 세상사의 연결)
  - \* 유사, 접촉(접속성), 대비



2-1장 file no.50

그는 과정으로써의 마음, 계속 변화하는(becoming) 것으로써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과정의 결과인, 이데아만을 강조한 플라톤과는 대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플라톤이 심리적 과정을 강조하지 않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현상으로써의 심리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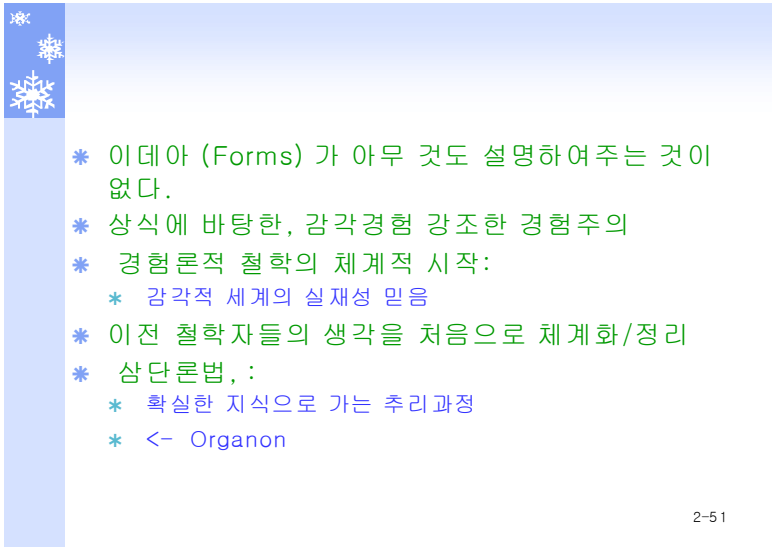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공헌한 것은 공통 감각 개념입니다. 'common sense'라고 하면 요즈음은 상식이라고 번역되는데, 심리철학에서 'common sense'라고 하면 공통 감각입니다. 공통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우리가 달을 본다고 했을 때, 달의 둥그란 형태를 보죠, 그 다음에 달의 색깔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색깔과 형태가 어떻게 통합되는가, 통합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 통합하는 무엇이 바로 공통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밥을 보면서 밥의 모양, 밥의 맛, 냄새 이런 것을 통합해서 경험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합하는 것이 공통 감각입니다. 요즈음의 인지과학 용어로 하자면 감각 경험 표상의 내용을 엮는, 즉 binding 과정의 문제인 셈이지요.

이런 통합적 공통감각 개념을 제시한 것이 심리학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줬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19세기에 심리학을 새로 출발시킨 분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음에 오늘 날에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상, 이미지와 기억에 대한 생각을 전개하여 오늘날의 심리학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마음의 본질과 경험을 통한 학습과 관련해서 '빈 서판(blank slate)'으로써의 마음 개념을 제시하여 백지장으로서의 마음관을 개념화하는 경험주의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다르게 마음을 백지장 같은 빈 서판으로 태어나고 경험에 의해서 그 빈 서판에 이런저런 내용이 쓰여 지고, 그 것이 통합돼서 마음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상당히 경험주의적인 입장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스티븐 핑커 등의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반박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나 아이디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유사,

접촉, 대비의 연합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여 연합주의적 전통을 철학과 심리학에서 출범시키는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 \* 이데아 (Forms) 가 아무 것도 설명하여주는 것이 없다.
- \* 상식에 바탕한, 감각경험 강조한 경험주의
- \* 경험론적 철학의 체계적 시작:
  - \* 감각적 세계의 실재성 믿음
- \* 이전 철학자들의 생각을 처음으로 체계화/정리
- \* 삼단론법, :
  - \* 확실한 지식으로 가는 추리과정
  - \* <- Organon

2-51

2-1강 file no.51

계속하여,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의(생득적 형상) 개념이 아무 것도 설명해주는 것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데아를 넘어서 감각적 세계가 실재함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반 생득론적 생각은 철학에서 경험론이 체계적으로 시작되는 바탕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추리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는 논리적 추론법이 체계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추리 논법을 체계화하여 논리적 추론 방법의 기틀을 잡아놓았고 그러한 연역-귀납적 추론 방법론을 통해서 후에 경험적 과학이 제대로 출범하게 하는 바탕을 제공 하였습니다.



\* <과학철학>

- \* 심리학은 경험 과학
- \* 자연의 법칙은 인과율에 의존:
  - \* 4가지 인과 원인 유형 (별도 자료 참조)
  - \* material, formal, efficient, & final CAUSE
- \* 목적론 강조:
  - \* 모든 사물은 definite end 을 향한 추동이 있다고 봄
- \* 세상에는 순수실현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을 신으로 개념화 => 기독교
- \* 자연은 계속 변화: 질적 변화에 관심.
  - \* 아기 -> 어른 ; 도토리 -> 도토리 나무
  - \* potentiality -> actuality :아기는 어른이어서 actualize하고자 하는 목적(목표)에 의해 변화됨

2-52

2-1강 file no.5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에 대한 생각의 전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첫째로 심리학도 과학적으로(물론 과학의 개념이 중세 이후에야 체계화 되었지만), 경험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연의 법칙은 인과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신이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지를 그는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인과율에 대하여 네 가지 인과 원인 유형을 얘기를 했는데, 물질적(material) 원인, 형식적(formal) 원인, 동인(動因; 효율적, 실행적 원인)(efficient cause), 그리고 종국적(final)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번째 동인이 오늘날의 경험과학에서 강조하는 인과율('cause-&-effect')의 바탕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국적 원인(종국적 원인은 목적론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에 신의 개입의 여지는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은 계속 변화하기에 우리가 질적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기가 어른이 된다든지, 도토리가 나무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가 대상이 잠재성(potentiality)을 가지고 있다가 이 잠재성이 실현되어서(actuality)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기는 어른이 되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목적론적인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왜곡되어 비판되었습니다.)



- \* 목적론적 설명의 강조
- \* 자연의 위계 강조:
  - \* pure actuality인 신에서 -> 인간 -> 동물 :
  - \* scala naturae
- \* 진화론적 관점 있음 :
  - \* continuous scale of ascent ; 계통발생적 계층
  - \* => 이런 관점은 후의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너무 의존하게 하여
  - \* 심리학 발전 지연시킴

2-53

2-1장 file no.5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목적론적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보충되는데, 그 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왜곡되어서 ‘신의 목적’과 같은 측면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진화 개념을 언급하면서 후의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과는 다른 의미의 ‘계통 발생론적 계층’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후대 사람들에 의하여 ‘자연의사다리(scala naturae)’라는 개념으로 발전된 이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생물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는 생물을 분류함에 있어서 여러 계층 범주를 제기하였고, 한 부류의 생물이 다른 부류의 생물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연계는 무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11계층으로 이루어졌고 이 계층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변화가 핵심인 다윈의 개념과는 다른 생각이지요. 이 계통발생적 계층의 개념은 후의 학자들이 자연의 사다리 개념으로 형성하여 집착하게 되어서 오히려 심리학의 발전을 지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De Anima

- 별도 'psyche 개념의 변천사' 파일 참조

- \* 1권 (심리학 개론):
  - \* 2원론 공격, 심신불가분, 이전의 psyche 개념 공격
- \* 2권: 단순행동 (감각),
  - \* soul의 제1 정의:
    - \* first actuality (entelechy) of a natural body
    - \* matter(신체)가 형상(form)을 얻어 완성되는 현실성;
      - \* 신체 없이 존재불가
  - \* => 생리심리학
  - \* The soul is what defines and animal.
  - \* soul이 있기에 인간임
  - \* soul = the Formal/ Efficient Cause of Man ;
  - \* soul & body 분리불가

2-54

2-1장 file no.54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 주제를 다룬 책은 라틴어로 [De Anima] 라는 책인데(영어로는 On the Soul (희랍어로는 Περὶ Ψυχῆς (Peri Psūchês)), 이 책은 영어 번역본을 보면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Cognition is in our eyes a thing of beauty and worth, and this is true of one cognition more than another, either because it is exact or because it relates to more important and remarkable objects."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1부(Book1)는 그의 학문적 탐구의 방법과 책의 내용 전개에 대한 전체적 개관이고 (심리학 개론), 2부(Book 2)는 동물 중심으로 단순 행동 감각의 특징을 설명했고, 3부(Book 3)는 인간(이성적 영혼)을 중심으로 마음과 이성적(지능 포함) 공통감각과 복잡한 행동 등의 영혼의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소개를 영문으로 보시려면 다음의 위키피디아 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en.wikipedia.org/wiki/On\\_the\\_Soul](http://en.wikipedia.org/wiki/On_the_Soul)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soul)에 대하여 - 그의 '영혼'이란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혼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란 식물적 번식과 섭생의 개념, 동물적 감각과 행동의 개념, 인간적 이성과 지성이란 개념들을 포괄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몸이 있는 생물의 일종의 '생명력'(entelechy)과 같은 개념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물질이 형상을 얻어 완성되는 현실성(actuality)의 개념이었기에 몸과 마음이 괴리되어서는 생각될 수는 없는 개념, 유기체(생명체)를 규정하는 본질의 개념이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로서의 인간임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히 그에게서는 몸과 영혼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불가하였고, 이런 의미에서 마음을 몸과 연결짓는 오늘날의 생리심리학의 기초를 그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유형에 대하여는 앞서 슬라이드 49에서 언급한 바처럼 생명체의 식물적 영혼, 감각적 영혼, 이성적 영혼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인간만이 식물적 영혼, 감각적 영혼을 포함하

여 그 이외의 이성적 영혼(지성, 또는 지능)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인간됨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 “we can wholly dismiss as unnecessary the question whether the soul and body are one: it is as meaningless as to ask whether the wax and the shape given to it by the stamp are one.”
- \* soul의 제2 정의 - 모든 생명은 soul을 지님
- \* soul의 기능
  - \* 1. 섭생적 nutritive - 성장, 생식 :식물이상
  - \* 2. sensitive 감각-운동; -감각분별 + common sense :
    - \* 동물 이상
  - \* 3. rational 이성
    - \* 인간만 보유
- \* 의 3 수준 (동물과 연속)

2-55

2-1강 file no.55

그는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하여 영혼(마음)과 몸이 하나인가 아닌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마치 밀랍과 그 밀랍에 낙인을 찍어 형태를 만드는 경우에 밀랍과 낙인의 형상이 하나인가 아닌가를 묻는 물음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는 감각을 중심으로 영혼의 구조를 설명하였는데,

###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구조

- 특수감각
- 시각
- 청각
- 촉각
- 미각
- 후각

→ 공통감각 → 수동적 마음

↓

능동적 마음


2-56

2-1강 file no.56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론하는 소위 5감을 특수 감각이라고 하여,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다섯 감각 경험을 통해서 감각 자료들이 들어오면, 마음의 어느 부분에서 이것들을 통합시키는 공통 감각(Common Sense)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시키고, 이것이 수동적 마음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여기에 능동적 마음이 작용해서 경험의 내용이 결정되고 그 것이



마음(영혼)의 내용으로 남는다 라는 그런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 \* - 5 감각 : 단순 감각 =. 감각과 지각 구별
- \* 공통감각: common sense 여러 감각에 공통적인 속성들을 연결하여 의미있고 통일성 있는 경험으로 통합: 사과 색깔 촉감, 맛 등을 하나의 경험 감각으로 통합
- \*
- \* 3권: 복잡 행동
  - \* (공통감각, 사고, 지각, 동기) - common sense
- \* - mind is a process / becoming의 강조

2-57

2-1강 file no.57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다시 한 번 공통감각이 거론되는데, 공통감각은 여러 감각에 공통적인 속성들을 연결하여 의미있고 통일성이 있는 경험으로 통합하는 영혼의 한 기능입니다.

그는 영혼(마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과정이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는 (becoming) 과정 개념으로 영혼(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책 De Anima의 3권에서 여러 감각들을 통합하는 복잡 행동의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기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고 희랍시대의 영혼 관련 생각의 내용은 [부록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Prava Naturalia>

- \* 감각 (착시; 감각과 지각, 심상, 사고의 구별), 기억 (연합원리), 잠과 깨어있음, 꿈, 수명, 청년과 노년, 삶과 죽음, 숨
- \* => 최초로 인간 경험의 여러 부면을 분류, 기술 및 해석
- \* - 연합법칙: 유사, 대비, 접속
- \* - 카타르시스 원리
- \* - 경험 + 이성(추리) => 지식

2-58

2-1강 file no.58

그 다음에 그는 [Prava Naturalia](자연에 대한 짧은 수상(생각))라는 문헌에서 몸과 영혼에 관련된 기타 현상들을 다음의 7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감각과 감수성: De Sensu et Sensibilibus
2. 기억: De Memoria et Reminiscentia
3. 수면: De Somno et Vigilia
4. 꿈: De Insomniis
5. 잠 속의 계시: De Divinatione per Somnum
6. 수명(생명의 길고 짧음) : De Longitudine et Brevitate Vitae
7. 젊음, 노년, 삶과 죽음, 숨(호흡): De Juventute et Senectute, De Vita et Morte, De Respiratione

이 문헌에서 인간의 감각과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시가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로 감각에 바탕을 둔 인간 경험의 여러 부면을 분류하고, 기술하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유연한 연합(기억의)법칙인 유사, 대비, 접속의 연합(연상)법칙이 제시되고, 회상기억의 메커니즘, 그리고 오늘날의 카타르시스 개념에 해당되는 생각과 그 메커니즘도 언급되었고, 경험 내용에 이성적 추리가 부가되어 지식이 생성된다는 인식론도 제시되었습니다.



- \* Dream, catharsis, recollection 의 개념과 메커니즘 논의 시작함
- \* \*\* ←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여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de Anima 책 소개는 별도 file 참조

2-59

2-1강 file no.59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여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de anima의 책 속에는 별도 파일 참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음 슬라이드처럼 요약합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점

- \* 기계론적 설명에는 적극적이지 않음
- \* 마음과 영혼의 자리
  - \* 심장; // 뇌는 피를 식히는 역할만
- \* 수학의 중요성의 경시
- \* 목적론적 설명의 강조, 신의 섭리 인정
  - \* 후세 사람들이 이를 신의 섭리 등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속 가능하게 하여 후세 과학 발전 지연시킴
  - \* 그러나 인격적 신이 아닌 우주의 원리로 개념화
  - \* \*물건이 왜 굴러가는가? 안주의 목적

2-60

2-1강 file no.60

아리스토텔레스가 심리학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지만, 나름대로 그의 문제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는 오늘날의 심리학에서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계론적 설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주의의 입장에서 기계론적 설명을 도입을 하기는 했지만 그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그런 식으로 마음(영혼)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의 그의 문제점은 마음의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마음과 영혼의 자리를 심장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큰 단점 중의 하나 인데(물론 당시에는 인체해부의 결과에 대한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뇌는 피를 차갑게 식히는 역할만 하고 마음(영혼)의 자리, 즉 여러 가지 마음의 내용을 만들어내고 통합하는 것은 심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셋째로는 그는 수학의 중요성을 경시를 했습니다. 수학은 추상적이고 이데아적인 것이고 그것은 경험의 바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은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못된다는 식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목적론적인 설명을 강조를 했는데, 신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후세 사람들이 이러한 설명론을 왜곡시켜서 신의 섭리 등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연결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과학 발전이 지연되었는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적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 X- 마음을 포함한 영혼의 자리를 심장이라고 봄
- \* (왜? : 뇌의 섬유는 외적 자극에 민감하지 않다; 뇌는 심장에서 오는 피를 차게 하는 기관)
- \* - 수학은 직접 관찰한 것을 다루지 않기  
에 과학에(물론 후에 나온 개념이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 \* - 신의 역할 unmovable Mover로서의 존재와 역할 인정하여 =>> 기독교
- \* => 후세 과학 발전에 부정적 역할

2-61

2-1장 file no.6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앞에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아리스토텔레스 종합>
- \* - monism, /
- \* - man-animal 연속선 /
- \* - 연합법칙 /
- \* - 경험주의
- \* - 5감각 분류 /
- \* - 기억 이론
  
- \* \*\* 비유: 피아제의 아동 발달 단계에서 본다면
- \* Plato: 전조작기 단계
- \* Aristotle: 구체적 조작기 단계

2-62

## 2-1강 file no.62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들이 심리학에 준 영향을 종합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에 대하여 일원론적 입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음과 신체가 하나의 통합적인 실체다 라고 얘기한 것, 동물과 인간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그는 경험 내용이 연합되는 연합법칙을 제시하고 경험주의, 경험론을 강조하고, 자연주의를 강조하고, 다섯 가지 감각을 분류하고 그 것을 통합하는 통합 감각을 얘기하고, 기억 과정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플라톤 보다 한 단계 나아간 그런 사고를 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대 과학과 심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플라톤의 이론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 <심화 자료>:
- \* <psyche 개념의 변천사 1:>
- \* 별도 한글 파일 참조
- \*

2-63

2-1강 file no.63

마음의 개념은 희랍시대 이래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거론되었고 여러 단계의 개념적 발전 역사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마음 개념 변천의 초기 역사에 대한 설명을 이 파일 끝에 참고 자료로 [부록2-1]로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4.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희랍

- \* 보다 체계화된 접근, 경험적 접근 시작
- \* - 323 BC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 죽음
- \* -> 형이상학으로부터, 현실과 현실의 제반 불확실성의 물음으로 돌아감
  
- \* -> Alexandria 중심으로 과학과 학문 발전
- \* - 이전의 이상적 forms 기술에서 예술이 현실주의로 돌아감
  - \* - 철학자의 관심 -> 인간 삶
  - \* 사람들은 제한된 행복- 마음의 평화, 괴로움에서 해방, 안정을 추구 (참 기쁨이 아니라)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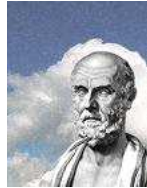
2-1강 file no.64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희랍 사상 전개 특성엔 언급하자면 (이것은 일반적 문화적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의 문화의 중심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학문과 과학이 발전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아 초기의 이상적인, 이념적인(이데아와 형상 개념을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 중심의 생각에서, 즉 플라톤적인 생각에서, 현실적 삶을 강조한 현실 중심주의로 넘어갔고, 철학자들의 관심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 괴로움의 해방, 이런 것이 점차 거론 되었습니다.



## 5. 히랍의 의학

- \* Alcmaeon
  - \* 뇌가 사고의 기관/ 건강은 조화의 문제
- \* Hippocrates
  - \* 뇌가 마음의 자리
  - \* 간질 등 발작을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
  - \* 4가지 체액의 조화 이론 = 심리역동
  - \* 여러 심리이상 증세를 기술, 분류함
  - \* X-잘못된 hysteria 개념



2-65

2-1강 file no.6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히랍시대의 의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거론되었던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 마음의(이성적 영혼의) 자리라고 했는데 반하여 알크마에온은 뇌가 사고 기관, 마음의 기관이라고 생각했고, 이어서 히포크라테스는 뇌가 마음의 자리이며, 간질 발작 등 발작 등을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고 네 가지 체액의 조화 이론을 제시를 했고, 여러 가지 심리 이상 증세를 기술하고 분류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오늘 날에 프로이트 이후에 많이 얘기를 하는 히스테리 증상을 체액이 뭔가 잘못 되어 몸을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는 잘못된 증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데아 중심이었던 플라톤의 전통과는 달리 경험적 의학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의학이나, 인간의 병, 그리고 그 치료를 이야기 한 것이지요.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체액(humor)설을 제시를 했는데, 인간의 신체에는 여러 가지 체액이 있고 그 체액이 사람의 심적 특성을 결정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체액이 조화가 되면 괜찮지만 조화가 안 되면 병이 생긴다는 생각을 전개하여서 인간의 마음을 생리학, 생물학과 연관시키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뇌가 지적 활동의 자리이며 뇌가 좌우 대칭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을 해서 굉장히 선구적인 생각을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임상치료를 강조를 했는데 그 이전의 전통에서는 병을 분류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왔다고 하면 히포크라테스는 징후 중심으로 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을 강조 했습니다.



## 6. 희랍 전체

- \* 감각과 지식의 구별
- \* 경험론 출발
- \* 생득적 관념, 보편적 이데아
  - \* → 인지주의심리학, 형태주의심리학
- \*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
  - \*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합리론 + 히포크라테스 경험론 = 조화된 관점 제시
  - \* 여러 주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2-66

2-1강 file no.66

끝으로 희랍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면, 희랍시대에는 감각과 지식을 구별하고(이것은 후에 인식론 이론 발전에서 중요한 생각 요소가 됩니다), 경험론이 출발하고, 생득적 관념, 보편적 이데아의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현대 인지주의 심리학, 형태주의 심리학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생각들이 심리학의 자연주의적, 경험주의적, 생물적, 생리학적, 진화론적 전통의 시작과 발전의 바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 접근을 한 것이 사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이 후세의 인류 문화에서 학문과 과학이 발전하는 데에 여러 면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 우리가 희랍시대의 문화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2주 2회 차에서 얘기하는 이후의 중세 시대의 심리학적 생각의 전개를 살펴보면 이러한 자연주의적, 경험과학 지향적 입장이 오히려 이 시기에는 한동안 억눌려지는 그런 입장이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음 2회 차인 로마시대와 중세의 심리학적 생각의 전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주 1회 차 강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50여 쪽에 가까운 긴 내용을 인내하며 그 이해에 참여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 참고 자료 [부록 2-1]

### : 'psyche' 개념의 변천 역사

---

초기의 그리스인들은 영혼을 의식과 삶의 원천이라고 보았고, 영혼이 떠나면 기절하거나 죽거나하며, 오늘날과 같은 신학적 개념은 없었습니다.

Homer의 Iliad & Odyssey (750-700 B.C.)에 의하면 마음이나 성격에 해당하는 언어가 없었고, 가장 가까운 것이 psuche는 - (이것이 잘못 psyche로 그리고 '영혼'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통용되는 용어인 'psyche'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 생명의 숨 (breath of life)의 개념으로서 오늘날의 마음이나 영혼의 개념에 못 미치는 개념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기절할 때, 잠잘 때에 입이나 상처를 통해서 몸에서 psyche가 떠나 혼령 (ghost)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작용한다든지, 이것이 행동이나 성격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주하는 몸의 기관에 대하여는 명료한 지적이 없었으나 머리로 간접 언급되었습니다.

그보다는 행동은 다른 개념의 영혼에 의해 설명하려하였습니다. 횡경막에 있는 'phrenes'라는 일종의 영혼은 행위를 이성적으로 계획한다고 보았고, 심장에 있는 'thumos'는 숨과 피와 연관되어 있으며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행동을 지배한다고 보았으며, 'nous'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명료한 인지를 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thumos'에서의 욕망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thumos'나 'nous'는 신체와 독립적인 어떤 것의 식으로도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제우스신이 '이해력'을 몸에서 빼앗아 갔다든지, 용기를 몸에 부어 넣었다든지 하는 형태의 표현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소영혼(mini-souls)들이 거론되었으나 자주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영혼들, 신체에서 파생된 소영혼들 어떤 것도 사람이 죽은 후에도 잔존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psyche]는 이들 소영혼과는 달리 사람이 죽은 후에도 저승에서 잔존한다고 보았으나, 일종의 병신 영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사고, 말, 일상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영혼이었습니다. [psyche]가 잔존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불멸(athanatos)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멸이란 신이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psyche]란 일종의 연기(smoke)와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psyche]의 모습은 죽을 때의 신체의 모양(상처 그대로)의 모습이었으며 모든 psyche가 저승Hades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매장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저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자, 아이, 노인들은 제대로 매장이 안 되었고, 따라서 이들의 psyche는 죽은 후에 살아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식을 갖춘 매장이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당시의 생각을 요약하면 영혼은 크게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thymos: 사고와 정서 관련 신체와 함께 사멸함. 횡경막 또는 폐가 의식의 기관이라고 생각되었고, 사고는 단어이고, 단어는 숨쉬(pneuma)이며 따라서 마음의 기관은 폐라고 생각되었음

2) psyche: 불멸의 실체이며, 신체가 죽은 후에도 잔존. 그러나 생시의 일은 기억 못함.

생시에도 의식 경험과는 관련 없음

따라서 심리학이라는 [psychology]라는 말은 이 당시의 그리스인들의 생각을 따른다면 [thymotology라고 했어야 합니다.

Homer 이후 약 200여년간 [psyche]의 개념은 ‘감정의 자리’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B.C. 5 세기에 이르러서는 [psyche]는 지적활동에 대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의식과 생명이 속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와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psyche]라는 개념이 단순히 숨의 개념을 넘어서서 불멸의 신적인 개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수행을 통하여 신체를 떠난 순수하고 자유로운 실체가 될 수 있으며, 재탄생, 우주적 신과의 궁극적 융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목적에서 [psyche]는 죽으면 몸에서 그냥 떠나는 숨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때의 자아와 성격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

### **Aristotle의 심리학적 생각: 일부**

[psyche]: 생명, 삶; 혼자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음. 그러나 움직임 속에, 감각, 사고 속에 나타남.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초기 입장에서는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요소인 ‘nous’를 인정하며, 이는 신체와는 독립적이고, 불멸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psyche]의 개념은 이후의 영혼의 개념보다는 물질과 통합된 개념이며, 생명에 본질적인 원리가 있고, 신체가 산 물질이라면 [psyche]는 신체에, 생명에 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임.

[아리스토텔레스의 ‘psyche’ 개념] : 자연적인 신체가 그 안에 생명적 potentiality를 지니는 실체로 제일의 entelechy이며 이는 생명적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것임.

생각하는 동물과 생각이 없는 동물을 구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별하는 그러한 것임: 신체는 물질(matter)이고, psyche는 form임. form이 psyche로 구성되어 있음

psyche는 formal cause와 efficient cause, final cause로 작용

신체는 psyche를 위하여 존재함. 자연스런 상황에서는 psyche가 신체를 지배함,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신체가 psyche를 지배함. 신체와 psyche는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것임. 둘은 불가분의 것이며, 단지 토론과 사고를 위해 구분하는 것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psyche는 몸 전체에 퍼져있는데, 고등동물일수록 psyche가 신체 각 부분에 퍼져있는 정도가 더 적고, 더 조직화되고 중앙집중화되어 있습니다. psyche의 신체내에 거주하는 센터가 심장이었음. 생명을 심장과, 그리고 psyche를 심장과 동일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두뇌가 (하늘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영혼의 기관이라는 플라톤의 입장과는 상치됨.

그는 psyche를 무한히 많은 여러 부분 또는 측면, 즉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보았으며, 흔히 크게 이성적rational, 비이성적irrational, 성장growing, 감각sensing, 앎knowing의 기능, 즉 psyche들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성장 psyche는 감각 psyche의 일부이고 감각psyche는 앎 psyche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간에는 위계적

조직화 및 통일성이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psyche의 본질이 통일성이라고 보았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종합한다면, 그는 최초로 심적 과정의 기능적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psyche를 하나의 과정으로서 psyche가 무언가 하는 것에 의하여 그 속경을 규정하였던 것임. 그리고 이러한 psyche의 구조는 외적 환경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원되고 인도된다고 보았음.